

‘미디어간 공조·공생으로 디지털 출판 시대 대응’



‘다매체시대의 출판산업 전략’ (사)한국출판학회 주최 제6회 한·중 출판학술 회의 디지털시대 문학출판의 급격한 변화는 소통 공간의 차원에서 ‘미디어의 변화가 문학의 변화를 초래한 때문’이란 진단이 나왔다. 특히 현재의 문학과 책의 위기는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그같은 소통 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미디어간의 공조와 공생을 위한 탐색’으로 이를 돌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16일 (사)한국출판학회가 ‘다매체 시대의 출판산업 전략’을 주제로 연 제6회 한·중 출판학술회의에서 김포대 남석순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문학출판’이 겪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 출판소설과 전자소설, 그리고 퓨전문학에 대한 이론적·산업적 분석을 토대로 한 공조 가능성 모색에 힘써야 한다”며 이같은 처방을 제시했다.

(사)대한출판문화협회와 문화관광부가 후원한 이 회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남 교수는 이론적 접근의 일환으로 문학출판을 콘텐츠로서의 문학과 미디어로서의 출판으로 구분했다. ‘문학을 담는 미디어’를 기준으로 출판문학과 전자문학으로 구분하되, 문학의 중심 테마였던 소설의 경우, 출판소설과 전자소설, 인터넷과 인쇄를 혼합한 퓨전소설로 나누었다.

남 교수에 따르면 문학출판 시장규모는 아동도서예 이은 3위를 차지하며, 출판시장 전체의 23퍼센트에 달한다. 그 중 46.5퍼센트가 출판소설로서, 아직은 전통적 소통 미디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 관점의 시장 파악’ 필요

전자소설은 대부분 텍스트의 단순한 변환이나 무협, 로맨스 등 주변 장르문학에 머무르고 있어,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퓨전소설은 충분한 미래 시장 가능성을 인정받았지만 하나 10, 20대에 편향된 부정적 측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남 교수는 “문학의 위기는 미디어의 변화에 따른 책 문화의 위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며 “특히 출판소설은 매체의 변화와 대중성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 수용 형태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자소설책의 경우는 종이책과 더욱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라고 권했다. 하이퍼텍스트 기능과 멀티픽션, 3차원의 영상기술 등 다양한 기법의 전달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퓨전소설은 문학성이나 예술성보다 인터넷 조회수에 의한 대중적 지지도에 따라 종이책으로 출판되는 만큼, 사이버 출판사 개설을 통한 네티즌 흡인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인터넷 문학 내지 소설에선 작가와 출판사들의 적극적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라며 “책의 위기를 논하기 전에 소비자 관점에서 시장을 파악하는 등 능동적 마케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을 강조했다.

‘넷프라’ 구축, 온라인 서점 특화도

이날 회의에선 또 김정숙 교수(백제예술대학)가 비슷한 맥락의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디지털 시대 한국 출판 발전을 위한 문화적 전략’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독서 ‘넷프라’를 구축키 위해 온라인 서점을 특화하는 한편, 북클럽 동호회 사이트에 대한 지원에 나서는 등 다각도의 대응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를 통해 “출판미디어와 인터넷미디어 간의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고,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책 수용에 높은 가치평가를 하는 소비자는 인터넷 미디어에도 강한 수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날 선행 이론과 실증연구 자료, 그리고 실험적 경험 사례를 들어 “출판미디어는 다른 미디어와 긍정적 동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그같은 등식을 실증해보이기도 했다.

웹프라와 대안 사이트 구축으로 공존 모색

그는 특히 온라인 서점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하이퍼 링크를 통해 안내하면, 독자에 대한 정보전달은 물론, 구매로 연결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부문별 온라인 서점의 특성화가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주제발표에선 특히 독서인프라로서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하는 유력한 방안으로 기업이나 단체, 대학 등 조직사회의 온라인 북클럽의 활성화를 제안, 눈길을 끌었다. 이는 각자의 홈페이지에 북클럽을 상정함으로써 온·오프라인 공히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김 교수는 “결론적으로 다미디어 다채널의 온라인 문화를 출판미디어의 경쟁관계로 바라보선 안된다”며 “인터넷 미디어를 독서를 위한 ‘넷프라’ 또는 웹프라로 삼고, 새롭게 네티즌을 끌어들이는 대안적 사이트를 구축함으로써 출판문화의 공존과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만 기자



제6회 한중출판학술회의

(사)한국출판학회(회장 이종국)는 지난달 16일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중국 등 국내외 출판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매체 시대의 출판산업 전략’을 대주제로 한 제6회 한·중출판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사)한국출판학회와 중국출판연구소의 상호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엔 중국의 유력한 출판사와 동 연구소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했다. 또 김포대 남석순 교수 등 국내 출판 전문가와 학자 등 4명의 패널이 발제에 나섰다. 이날 학술발표는 이은국 교수(서일대)의 사회로 주제 발표가 이어졌고, 마지막 순서에서 참가자 전원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있었다.

발 제 내 용

	1부
이기성	계원조형예술대 교수 최고급 출판물 제작을 위한 국제 협력에 관한 연구
이효엽	중국서적출판사 총편집 중국의 잡지출판 현황과 발전 현황
주학동	‘傳媒’ 멀티미디어 잡지 부사장 중국의 저작권 산업 발전개황
	2부
남석순	김포대학 교수 디지털 시대의 문학출판
왕 표	감숙인민출판사 부주임 중국의 네트워크 게임 발전상황 및 추세
이 향	운남인민출판사 연구위원 멀티미디어 시대의 번영과 출판의 위상 -중국의 멀티미디어 출판발전 상황과 전망
이두영	원광대 겸임교수 성장전략의 전환 필요성과 정책과제 -다매체 시대의 출판산업 발전전략 방향
여 민	중국출판과학연구소 소장 중국 출판산업의 개혁과 발전